



Our Life in Christ and Our Public Life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적인 삶)

Fr. Jerome Wolbert, OFM, CNSA

(작은형제회 제롬신부)

내가 처음 낙태라는 말을 들은 것은 고등학교 영어시간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래 전 부터 사람들은 더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도 많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오늘 날까지 꾸준히 낙태는 선거 때 마다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내가 신부가 된 후에는, 성사를 줄 때마다 여러 자매님들이 낙태때문에 달라진 삶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줄 곧 들을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현명하게 우리들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4학년때 어머니는 딸들을, 아버지는 아들들을 가까운 박물관에 데리고 가서, 수업을 같이 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리와 발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온 가족이 애기가 잉태되어 출산하기 까지 전 과정을 PBS 텔레비 프로를 통하여 보았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을 때는 할머니께서 우리들을 봐 주러 오셨는데 그때 할머니와 함께 우리는 그 티비 프로를 또 볼 수 있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우리가 이걸 보는 줄 알면 너희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하고 말씀 하신 기억이 난다. 우리는 “엄마는 우리들과 벌써 보셨어요...” 하고 대답했지요.

애가 생기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별로 신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엄마 배속에 애가 생기는 것은 “형체없는 그 무엇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람”이 된다는 그냥 그렇고 그런 “상식” 처럼 보인다.

고등학교때 영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토의제목을 주셨을때, 교회는 벌써 낙태를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다. 교회는 명백히 과학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과학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궁안에서 애가 생겨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 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혹시 낙태를 마음 먹은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 초음파 사진을 보는 것 만으로도 아마 낙태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그 영어 클래스에서는 낙태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세명 뿐이었다. 이른바 여성의 “선택권”이란 구호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태아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엉뚱하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판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주위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인것 같다.**

(15)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15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주도 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특히 [우리는] 사회생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걸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한 표 던지는 것 만으로 우리의 공적의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생명과 발달에 대한 우리 부모님의 간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접근법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모든 문제는 나름대로 특별한 데가 있으며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과 흥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두려움없이 대화할 때 우리는 큰 영향을 받는다.

묵상거리: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 복음생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회통념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